

사회

도심환경 살리고
이웃사랑 키우고
자녀들 농사체험



광주·전남녹색연합 회원들과 일곡동 주민, 어린이들이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새봉 개구리 논'에서 올해 재배한 친환경 쌀을 직접 수확하고 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제공>

일석삼조 '한새봉 개구리 쌀'

“도심 주민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한새봉 개구리 쌀’ 사세요.”

도심의 마을 뒷산과 논을 보존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동 경작한 쌀이 어려운 이웃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최근 광주·전남 녹색연합 회원과 일곡동 주민 등 200여명은 지난 6일부터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 자락에서 재배한 ‘한새봉 개구리 쌀’을 수확했다. ‘개구리 쌀’이라는 이름은 한새봉 자락의 논 주변에 개구리가 많이 사는 데서 비롯됐다.

공동경작에 참여한 회원들은 한새봉 자락 2천600㎡의 논에서 수확한 1천200kg의 쌀 가운데 300kg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경작에 참여한 50여가구에 각각 10kg의 쌀이 돌아가고, 남은 쌀은 일반에 판매할 계획이다.

박필순(37)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친환경 수작업을 통해 수확한 쌀의 양이 그동안 농약과 비료를 사용

녹색연-광주 일곡동 50가구 공동

무농약 수작업 재배 1,200kg 수확

어려운 이웃 돕고 일반에도 판매

한 쌀 수확량과 차이가 없어 모두들 깜짝 놀랐다”며 “자연을 보호하면서 이웃과 함께 경작한 쌀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중에도 판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지난 5월 논 주인인 노현철(73) 할아버지의 동의 아래 주민 등을 상대로 공동경작 설명회를 열고 참가자를 모집한 뒤 지난 6월 모내기에 들어갔다.

밭이 좋은 날을 택해 이뤄진 모내기과 비베기, 탈곡 등에는 5만원씩 분양비용을 내고 공동경작에 참여한 50가구의 자녀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쌀이 어떻게 밭상에 오르는 지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농약과 화학비

료 없이도 얼마든지 벼를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새봉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한새봉농사사랑과 녹색연합, 주민 등이 농약이나 화학비료로부터 한새봉을 지키고,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된 데는 이 논 주인인 노 할아버지의 배려도 있었다. 노 할아버지는 공동경작에 참여한 이들의 뜻에 공감해 논도 빌려주고 농사짓는 법도 알려줬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11일 북구 일곡동서관에서 경작에 참여한 주민들과 ‘한새봉 개구리 논 나눔 녹색잔치’라는 송년회를 열고, 지난 5개월간의 공동경작을 돌아봤다. 또 내년에도 계속될 ‘한새봉 개구리 쌀’ 재배를 위해 ‘한새봉 논 두레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지나해까지 일반적인 농업이 이뤄진 이어서 완벽한 ‘유기농 쌀’이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면서도 “그러나 한새봉을 농약이나 화학비료로부터 지키고, 어린이들과 주민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석곡동 주민자치위

노는땅 경작 쌀 수확

어려운 이웃에 전달

광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수년간 마을 인근의 ‘노는 땅’을 직접 경작해 수확한 사람의 쌀을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석곡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지난달 30일 마을 인근의 논 991.74㎡(300평)에 벼농사를 지어 모두 16포대(20kg 기준)의 쌀을 수확했다. 경작 농지는 북구청 소유이며,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상 임대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초 991.74㎡의 논에 모를 심었다. 이후 봄기름이 계속되면서 물주기와 잡초제거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린 끝에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모와 비료 등 비용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냈다.

이들이 노는 땅에 직접 농사지어 이웃사랑 실천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무언가 마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끝에 노는 땅에 잡초를 없애고 흙을 골라낸 뒤 벼농사를 지어 마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 수확한 쌀을 전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그동안 전달한 쌀 만도 20kg 기준 64포대.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24일 석곡동 16개 통별로 각각 한 포대씩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시 북구 김종호(65) 석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노는 땅에 벼를 재배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봉사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 주민 간 화합을 키우는 효과도 크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실천 운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7977) 김장동



북구의회 구희호 의장

조합장 당선 사퇴 논란

광주 북구의회 구희호(57) 의장이 11일 북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의원직 사퇴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1일 북광주농협에 따르면 구 의장은 이날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 2명을 누르고 4년 임기의 조합장에 당선됐다. 조합장 취임식은 내년 1월 중순이며 지방의회 의원은 농협 등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 의장은 취임식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자율형 공립고 2차 신청

광주지역 5개 학교 접수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자율형 공립고’ 2차 신청에 5개 학교가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학교는 광주지역 공립고로 13곳 중 광주고와 광주일고, 상무고, 첨단고, 전남여고 등 5곳이다. 시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이 가운데 3곳 정도를 선정해 교과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박진희기자 lucky@kwangju.co.kr

구례 가정집 화재

70대 독거노인 숨져

지난 10일 밤 11시30분께 구례군 용방면 A(여·78)씨 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로 혼자 생활해 오던 A씨가 숨지고 집 45㎡가 전소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원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선거 입지자 ‘보이스 피싱’ 주의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에 뜻을 품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보이스 피싱 주의보’가 내려져 눈길.

○11월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 대표 가족이나 최고위원 부인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한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당원들의 신고 전화를 계속되자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이스 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전방’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이스 피싱에 넘어 돈을 송금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감안시설에 현혹될 당원이 있을지 몰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치매 어머니와 살던 정신질환 50대 아들

집 안방서 숨진채 발견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과 함께 살던 80대 치매 노인이 집을 나간 지 며칠 만에 귀가했으나 아들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밤 9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지족동의 한 노인회관에서 “치매 노인이 있으니, 집을 찾아 달라”는 한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노인회관에서 만난 박모(여·86)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집까지 동행했다.

집에 도착한 경찰은 박씨를 부축해서 안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안방과 가까워질수록 심한 악취가 났다. 이상한 냄새에 방 문을 열어보니 박씨

의 아들 고모(51)씨가 숨져 있었다. 사망 시기는 4~5일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고씨는 중학교 중퇴 후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10년 전 아버지가 숨진 뒤 정부의 지원금으로 박씨와 함께 생계를 이어왔다.

경찰은 외상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고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씨는 아들이 숨지면서 밥을 굶게 되자 배고픔을 참다 못해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릴레이 행사’ 참석자들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능성적 비판

재수생 목매 숨져

수능시험 성적을 고민하던 재수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5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M사찰 인근 산책로에서 이모(23·경기도 안양시)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 L(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L씨는 경찰에서 “등산 도중 사람 형체로 보이는 무언가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가봤더니, 이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숨지기 직전 부모와 여자친구에게 “죄송하다. 행복 해라”는 등의 내용의 예약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이씨는 지난 5월 군 제대 후 수능시험을 준비해 왔으며, 수능시험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어릴 적 자신이 자란 마을의 뒷산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 교통사고 줄이자”

범시민운동본부 ‘릴레이 행사’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는 1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릴레이 행사’를 갖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와 손해보험협회, 시민사회단체연합,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1천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의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 캠페인의 전국화 등을 선언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김양근 범시민운동본부 대표회장 등 7명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귀남 법무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 추가 확인

진실화해위 “보성·고흥서 88명 군·경에 학살”...국가 사과 권고

여순사건 당시 보성과 고흥지역에서 수십명의 민간인들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1일 여순사건때 보성과 고흥지역 민간인 학살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 정부가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서에 따르면 지난 1948년 10월 말부터 1950년 3월 까지 보성·고흥의 민간인들이 토벌 작전에 나선 군·경에 의해 살해됐으며, 그중 정모씨 등 88명에 대한 희생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성경찰서,고흥경찰서, 제8관구경찰청 소속 경찰, 국군4연대, 15연대 소속 부대원에 의해 살해됐으며, 이모씨 등 15명도 같은 기간에 희생됐다.

당시 토벌대는 반군과 협력자 색출 작업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연행해 고문하는 한편, 보성군 특령면 인군과 고흥을 공동모자 등지에서 이들을 사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20대와 30대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조사대상 88명 가운데 남자가 80명(91%)에 달하는

등 젊은 남성들이 주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군·경이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만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즉결처분하는 등 사실상 학살이 자행됐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방부와 이승만 정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위는 ▲국가 권력의 잘못 공식 인정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지원 등의 조처를 정부에 권고했다. /최정호기자 choice@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1분 해질 17시 21분 달돋이 03시 14분 달질 14시 05분

흐린뒤 맑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흐리겠으나 오후에는 맑아질다.

구분	구름조도	기온
광주	구름조도	6/10℃
목포	구름조도	6/9℃
여수	구름조도	7/11℃
완도	구름조도	6/10℃
구례	구름조도	4/11℃
해남	구름조도	4/11℃
장흥	구름조도	4/11℃
고흥	구름조도	4/11℃
순천	구름조도	6/11℃
영광	구름조도	5/9℃
전진	구름조도	5/10℃
전주	구름조도	5/9℃
남원	구름조도	3/9℃
축산도	구름조도	7/8℃

구분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구분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목포 10:58	03:3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목포 23:01	16:2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06:10	12: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8	1/7	0/5	-2/5	-2/3	-3/2